

【빛추타카마츠성 수공(水攻)의 역사를 아는 「무네하루 연꽃」】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폭우 속에서 밝은 색상의 가련한 꽃이 인상적인 빛추타카마츠성의 「무네하루 연꽃」의 연꽃놀이회에 참가했습니다. 혼 마루 유적 근처의 연못에 피는 이 연꽃은 1982년에 오카야마시가 이 연못의 복원을 실시했을 때,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약 400년 전의 시미즈 무네하루 시대의 연꽃 씨앗이 싹 트고 자생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어, 시대를 넘어 무네하루가 보고 있던 연꽃과 같은 DNA의 연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였습니다.

때마침 NHK 대하드라마 「쿠로다 칸베에」에서는 타카마츠성의 수공(水攻)이 한창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모리집안에 충성을 다했다고 전해지는 시미즈 무네하루는 드라마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 우리 오카야마 시민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큰 고비가되는 「혼노지의 변」으로, 다음 일요일은 시미즈 무네하루의 할복 그리고, 「중국대반환」으로 오카야마의 땅을 무대로 역사가 크게 움직입니다.

또한, 연꽃놀이회에서는 다카마츠 성터 보존회 요코타 회장께 안내 받았습시다만, 그때 별채의 사진 전시 안에 쇼화 말기의 아시모리 천 범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었는데, 드라마의 수공(水攻)장면의 영상이 주위의 산 높이도
그렇고, 호수에 떠 있는 성 위치도 이 사진과 매우 비슷하여 정밀한
묘사에 감탄함과 동시에 그 사진을 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회의 드라마에서 빗추타카마츠 성이 크게 부각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사람이라도 많은 분이 타카마츠 성터에
오셔서 전국 시대의 역사의 큰 전환점인 무대를 직접 피부로 느껴
주셨으면 합니다.